유럽 地域은 工業所有權 制度의

유럽 地- 工 所有權 研修를

〈康一宇 辨理士〉

유럽地域工業所有權研修에 대한 參加申請公文을 韓國發明特許協會로부터 받아본 순간 흥분과 기대로 筆者의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유럽地域은 特許制度의 발상지이면서 장기간에 걸쳐 정착화하고, 지금은 特許業務가 多變化하고 國際化하는 實情에 맞추어 많은 制度的 裝置가 여러 기구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에 特許業務에 몸담고 있는 筆者로서는 一種의 메카와 같은 곳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자격으로는 쉽게 訪問하기 어려운 프랑스 特許廳 및 特許協會, 그리고 독일 特許廳, 유럽特許廳 또한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와 이태리特許廳등이 研修의 對象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번 研修에 參加하였던 모든 團員의 기대도 컸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研修에 對한 준비의 모든 세부사항은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 치밀하게 마련이 되어, 1985年 11月 15日

유럽 상륙

11月 16日. 서울을 출발하여 바레인을 거쳐 제다에서 한숨 돌린후 다시 쥬리히 까지 이어지는 장시간의 비행과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파리에 도착하였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11月 17日 낮 12시 30분.

무려 25여시간의 긴 여정이어서 모두 피로의 기색은 보였으나, 첫 방문지인 파리의 모습은 모든 團員의 심신을 맑게 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파리 특유의 거리와 建物모습 그리고 세느江 주변의 文化的 遺産, 무엇보다도 그들의 文明을 지키고 保存시키려고 努力하는 프랑스人들에게 내심 질투와 讚辭를 함께 보내면서 오후 늦게 첫 宿所인 CARLTONS HOTEL에 도착하였다.

내일 부터의 본격적인 研修에 대한 각오와 준비를 새롭게하고 한 껏 기대부푼 채 유럽상륙 후의 첫 밤은 서서히 깊어가고 있었다.

프랑스 特許協會(UNION DES FABRICANTS)

11月 18日 아침. 첫 방문처인 개선문 근처의 프랑스 特許協會를 찾아갔다. 이곳 파리에서의 체류중 프랑스 特許協會외의 기타 訪問處까지의 프로그램은 事務局長인 ALAIN THRIERR씨가 맡아주었다. 잠시 인사와 환담이 있은 후, 프랑스 特許協會에 대한 객관적인 說明겸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韓國發明特許協會와 오랫동안 서로 긴밀한 協助關係를 유지해오고 있는 프랑스 特許協會는 1872年에 설립되어 현재 회원수는 약 1,200여개 會社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會員社들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프랑스의 경제활동을 펴고 있는데, 향수에서 철강산업까지 그리고 식품에서 의약산업까지 다양한 기반을 갖춘 기업들이라 한다.

프랑스 特許協會의 活動目標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會員들의 商標保護

會員들의 商標保護는 몇가지 方法을 通해서 수행되

發祥地

마치고

辨理士 康 一 宇
〈康東壽·康一宇特許法律事務所〉

結團式을 시작으로 유럽地域工業所有權制度 視察은 무리없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南 啓榮 特許法律事務所 所長을 團長으로 研修團 10名이 金浦空航을 出發할 때 韓國發明特許協會의 많은 임직원의 장도를 빌어주는 환송은 무척 고마웠다. 出發하는 1985年 11月 16日은 하늘까지 환송의 표시로 비를 뿌려주었던가. 아뭏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와야 겠다는 다짐은 유럽상륙의 서막부터 더욱 굳어지기만 했다.

〈筆 者 註〉

고 있는데 첫째로는 先登錄商標에 대한 調査로서 출원전에 該當國家의 先登錄商標를 컴퓨터로 調査할 수 있고, 둘째로 商標登錄出願으로서 국내 代理人과 協力하여 프랑스내 또는 기타 외국에 出願을 대행하여 주고, 셋째로는 監視서어비스로서 해당 부서에서는 외국商標公報를 接受하여 分析한 후 會員들에게 通報하여 줌으로서 會員들의 利害關係에 따라 異議申請 또는 訴訟까지도 進行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法的인 情報提供을 하고 있는데 17名의 辯護士들이 出願, 訴訟, 工業所有權에 對한 契約등 모든 商標問題에 대하여 法的인 事項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2. 一般的인 利益에 관한 保護와 방어

이 활동에 대하여는 프랑스 特許協會는 商業的인 關係를 개선하고 工業所有權法 條約 國家와 關聯機關과의 協約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協力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特許協會는 外國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필요를 가지고 있어 이미 日本과 韓國에 각각 1981年과 1982年에 이러한 事務所를 개설하였다.

즉, 이와 같이 프랑스 特許協會는 會員들의 商標에 대한 國·內外의 모든 問題를 解決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商標가 企業活動에 얼마나 重要한 가를 認識시켜 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유럽研修紀行

프랑스 特許廳(INPI)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 特許廳을 방문하여 프랑스 特許制度에 대한 개괄적인 說明과 이곳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수록내용 그리고 情報의 使用方法등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프랑스 特許制度의 개략

1. 일반 사항

전세계를 통하여 특허를 허여하는 방법은 발명의 특허성을 審査하여 特許를 허여하여 주는 방법과 특허성에 대한 豫備審査없이 특허를 허여하여 주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1968년까지 프랑스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었으나, 1969년에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확정되었다. 특허는 documentary report가 발부되면서 허여되는데, 出願은 명백히 신규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거절되나 진보성이 없다고 하여 거절되지는 않는다. 사실, 통계상 10件의 出願중 7件의 特許가 허여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통계는 미국이나 EPO등의 심사주의에 의한 특허 허여율의 통계와 비슷하다고 한다.

出願의 種類로서 첫째, 特許는 存續期間이 出願日로부터 20年이고 둘째, 實用證明(Utility certificate)은 그 存續期間이 出願日로부터 6年이며 셋째, 追加證明은 特許 또는 實用證明에 追加되는 것으로서 이는 年金은 納付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하나의 發明은 두가지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프랑스 특허는 프랑스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것이고, 프랑스를 지정하는 유럽특허출원은 유럽특허청에 직접하거나 프랑스 특허청을 통하여 출원을 하는 것이다.

2. 出願과 방식심사

출원시에 출원번호가 주어지며, 출원으로부터 5~7일내에 방식심사과에서 당해 출원이 심사청구 발명의 명세서에 적어도 1개항의 청구범위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들 구비사항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나 대리인에게 출원일이 표시된 통지서를 송부한다.

방식심사 자체는 그후에 수행되는데 심사관 1인이 하루 20여건을 처리하며 이 단계에서 또는 기술심사 단계에서 불비사항이 통지된다.

3. 防衛 審査

국방부의 관리는 출원이 국방상 비밀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4. 審査課

심사과의 임무는 2단계로 구분된다.

그 첫째는 심사관은 기술적 관점에서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여 특히, 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명하며 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가와 조사가 수행될 수 있는가 등을 검토하며 불비사항은 출원인에게 통지되고, 또한 심사관은 국제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심사관 1명이 1년에 약 200건의 출원을 다루며, 약 1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때 명세서·도면·청구범위의 사본 1부가 헤이그로 보내지고 그 곳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프랑스 특허청은 모든 참증기술이 기술적 배경으로 인용되었을 때를 제외하고 청구범위를 보정하거나 의견을 提出하여야 할 出願人이나 代理人에게 이 조사보고서를 송부한다. 두번째는 조사보고서와 出願人의 답변을 고려하여 documentary report가 作成되는데 여기에는 先行기술과 관련 청구범위의 비교가 기재되고, 이 report는 特許가 허여될 때 함께 發行된다.

5. 出願의 公告

出願서류는 出願日이나 優先權 主張日로부터 18개월째되는 때에 공중에 열람되며, 조사보고서가 준비되면 동시에 열람된다. 그리고 발명의 要約書가 공고되며 이때 열람할 수 있는 서류도 언급된다.

6. 이의신청과 항고절차

프랑스특허법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조사보고서와 특허출원서는 공중의 열람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법 제68조에는 특허청장의 査定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규정과 제3자가 理論的으로는 特許 허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프랑스 특허제도에 대하여는 특기할 것이 많이 있으나 지면상 더 할애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톰슨社 訪問

다음날인 11月 19日. 일행은 프랑스 굴지의 기업중 하나인 톰슨사를 방문하였는데 특허부장은 프랑스 특허협회 사무국장의 부인이었다.

특허부장은 자사내에서의 특허부의 활동과 국내외 출원이 결정되기 까지의 과정 및 특허의 유지 그리고 특허가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여성다운 섬세함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다.

톰슨사의 특허부에는 부장을 포함한 68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중 특허관계 기술자는 26명이라고 한다.

톰슨그룹은 일반상품·의약·군수방위산업, 전자관련사업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첨단 역할을 하고 있느니 만큼 특허업무도 그룹의 성격에 맞추어 호응하자면 충분히 조직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파리에도 2개의 연구소가 있어 많은 연구원들이 특허출원 여부와 기술검토를 위하여 이곳 특허부를 방문하고 있었다. 하나의 발명이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발명자의 기본 명세서에 근거하여, 협의를 통하여 완전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회사와 발명자간의 양도절차를 거친 후에 출원을 하게 된다.

출원전 신규성조사는 대개 생략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선권 일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확보하고 프랑스 특허청에서의 신규성 조사비용이 비싸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원시에는 가능한 한 권리범위를 넓게 청구하나 선행기술과의 문제로 인한 결정적 검토시기는 당해 출원을 외국출원으로 계속 진행시키고자 할 때라고 한다.

신규성 조사보고서로부터 경쟁회사의 특허 기술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급적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피하도록 하며, 침해여부가 인정되면 제품을 변경하거나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센스를 얻도록 노력한다고 설명하였다.

외국출원시의 국가선정은 경쟁업체와의 동일제품 수출 여부나 시장성 기술이전계약의 妥當性 그리고 외국내의 자매회사와의 협조여부등을 고려하고 불가피

하게 타업체의 특허를 侵害하게 되면 자사의 특허권과의 교환등의 방법을 채택하기도 한다고 한다.

1984년도 자국과 외국에서 보유중인 특허권은 약 14,000건 정도이며, 외국지역은 주로 EPO가입국이라고 한다.

프랑스 全經聯(CNPF)訪問

오후에는 프랑스 전경련을 방문하였는데 유럽특허협회의 프랑스담당이며, AIR LIQUID社의 사장인 BESSIÈRE씨의 설명이 있었다.

전경련내의 분과중에는 특허·기술제휴·디자인/모델·상표의 4개분과가 있으며, 특히 상표분야의 업무로는 유럽 전체의 종합商標法에 대하여 연구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번 연수단으로서는 프랑스 전경련이라는 단체와 활동이 다소 생소한 감이 없지 않으나 회원사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이익을 위하여 EPO와 더불어 가히 국제적인 활동을 펴나가는 면모를 볼 수 있었으며, 프랑스 특허청에도 전경련에서 4名의 위원이 파견되어 있다고 하였다.

뮌헨(독일) 到着

11월 20일 아침. 첫 방문지인 파리를 뒤로하고 뮌헨으로 출발하였다.

뮌헨에 도착하자마자 한국발명특허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세미나를 가진바 있던 VOSSIUS, VOSSIUS, TAUCHNER, HEUNEMANN, RAUH 特許法律事務所소장 보시우스 박사의 환영이 있었다. 마침 이날은 독일의 공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파트너 변리사들이 사무소에서 우리를 반겨 간단한 파티까지 열어주어 파리에서의 피곤함이 말끔히 가시고 상쾌한 마음으로 독일의 첫모습을 대할 수 있었다. 더구나 전날 내린 눈으로 도시의 안락함이 더하여 이곳에서의 성과가 만족할 것으로 모두 기대가 컸다.

오후의 여가를 이용하여 독일 과학역사의 산실인 독일박물관을 들렸다. 고대부터 금세기 최첨단의 과학의 만찬장인 이곳은 특히 학생들의 과학교육의 실습장으로 사용되기에 모자람이 없었고 시민들의 관람이 대단하여 가히 기술독일의 참모습을 보는 듯하여, 짧은 시간의 관람이었으나 단원 모두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필자도 이번 연수중 가장 부러웠던 것은 바로 이 독일박물관이었던 것이다.

독일 特許廳

11월 21일 아침. 눈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독일특허청을 방문하여 독일특허청장과 제1국장등 관계자로부터 독일특허청의 기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몇개 부서를 직접 견학도 하였다.

독일특허청은 법무성 소속으로 1877년에 설립되어 현재 총인원 2,200명, 심사관은 약 6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크게 4개국으로 나뉘어 있고, 제1국은 특허에 관한 심사실무로서 기술분야별로 26개 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2국은 정보와 서류 분류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3개부서로 나뉘어 각각 도서관·분류·서류분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3국은 상표, 실용신안, 소송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4개 부서로 나뉘어 있다.

제4국은 행정 및 기획 전산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 특허청은 1975년부터 國際分類를 채택하고 있고, 600여명의 심사관이 연간 55,00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소장자료수는 약 2천 6백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심사관은 1명마다 전용실이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심사관에 있어 바람직한 업무분위기였고, 마침 자동차관계 심사관실을 방문하여 특허 허여된 일체 서류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심사초기부터 특허허여까지의 모든 문제를 심지어 표현하는 단어 하나까지 출원인과 심사관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백발의 노신사의 기품을 깊게 풍기는 독일 특허청장은 우리 연수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고 대담중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는 분단국가로서의 아픔과 문제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고, 또 그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도서자료중 우리나라의 공보는 발행후 4주일안에 독일 특허청에 반입되고 있어 비교적 빠른 편이라는 자료 과장의 설명도 있었다.

더 보고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다음을 다시 기약하면서 과학기술의 요람인 특허청을 떠나 유럽특허청으로 향하였다.

유럽 特許廳(EPO)

유럽특허청에서 유럽 특허조약·EPO개발협력기구·EPO현황소개 및 유럽특허 허여절차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EPO는 WIPO 다음가는 공업소유권에 대한 세계기구로서 1973년부터 기본적인 문제가 논의되어 1975년에 설립되었고, 1978년 6월에 첫 출원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가입국은 11개국으로서 오스트리아·벨기에·서독·프랑스·이태리·리히텐슈타인·룩셈부르크·네델란드·스웨덴·스위스 그리고 영국이다.

1986년에는 스페인이 그리고 1992년에는 그리스·아일랜드·덴마크가 가입할 예정하며, 공용어는 영어·불어·독일어이고, 현재의 업무목표는 요금의 저렴화와 출원절차의 간소화로서 금년 12월경 룩셈부르크에서 이점에 대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였다.

금년은 출원건수는 39,000건으로 예상되며, 특허허여 건수는 18,000~20,000건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EPO는 제1청부터 제5청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제1청은 헤이그에 있어 출원서 접수·조사·문서조사정리업무를 행하고 있고 서베르린에 지부가 있다. 제2청부터 제5청까지는 뮌헨에 소재하고 있는데, 제2청은 화학·물리·전기·기계등 기타 관련 발명기술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제3청은 법적·기술적인 항고재판소의 역할을 하며, 제4청은 정보·재정·인사·언어서어비스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5청은 법적분쟁이나 국제관계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출원은 극소수에 달하여 향후 EPO를 통한 유럽에의 출원전에 EPO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을 실감하면서 EPO를 떠났다.

지멘스社 訪問

독일 유수의 多國籍企業인 지멘스社를 찾아가는 발걸음은 어디에 못지 않게 가벼웠다. 지멘스는 전기통신정보시스템·의약·텔레컴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안전시스템·동력엔지니어링·자동화설비·부품산업 등 실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참여하여, 독일내 14개 지역의 본사 및 지사와, 세계 128개국에 지멘스의 지사 및 협력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규모의 그룹이다.

특허부서 책임자는 EPO변리사로서, 자사 특허업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새로운 발명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경우 연구자와 기타 종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진에 보고한 후 출원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현재 특허권 보유수는 국내 20,000건, 외국 약 40,000건, 도합 60,000건이며, 연간 출원건수는 국내 약 2,500건, 외국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약 3,500건으로 도합 약 6,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모든 특허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쟁기업의 특허보유 현황까지 전산화되어 있어 검색속도가 빨라 타부서 또는 자매회사에서의 이용이 활발하다고 한다.

특히 최고 경영주는 누가 되느냐는 질문에 말단직원으로 입사되어 각 분야에 경험을 쌓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자기도 특허부서 말단직원으로 입사하여 이제는 백발의 노신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과연 전문가 양성으로 기술독일을 탄생시킨 본보기가 되는 듯 했다.

BMW社 訪問

BMW社는 자동차·오토바이 생산업체로서 뮌헨올림픽경기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뮌헨을 찾는 사람들의 관광명소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BMW본사의 건물은 그 형태가 독특하여, 중앙기둥 하나에 4개의 원주형 건물이 상하로 모두 8개가 마치 매달려 있듯이 설계되어 건물자체의 외관이 미려함은 물론 자체 박물관까지 부속되어 찾는이의 즐거움을 더해 주고 있다.

BMW사를 방문하자마자 일행은 1개 차종의 생산라인의 시작부터 완제품이 출하될때 까지의 전공정을 견학하였는데, 거의 전공정은 로보트로 자동화되어 있고 특히 자체기술을 이용한 공정에서는 안내 설명이 더욱 고조되는 것 같았다.

BMW사의 특허부는 크게 법률문제와 특허문제를 다루는 부서로 양분되어 있고, 특허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12명의 특허 기술자가 실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특허부에서는 부속부터 완제품 조립까지의 모든 기술에 관한 특허를 관장하고 있으며, 출원시에는 EPO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현재 특허보유건수는 국내 800건, 외국 1,200건으로 전체 약 2,000건이며, 연간 출원건수는 약 130건 정도이다.

보유특허권중에는 약 15년전에 특허된 기술을 아직 독점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그 특허보다도 노우하우의 집약성이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 출원시의 고려대상은 타사와의 경쟁대상국인가의 여부와, 시장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특허부장의 설명이었다.

제네바(스위스) 到着

11월 23일. 기술의 도시 뮌헨의 설경을 뒤로하고 스위스의 제네바로 향하였다. 제네바는 갖가지 국제기구가 모여있고 각국의 인종이 활동하는 그야말로 국제도시임에 틀림이 없었다.

구름이 낮게 깔리고 바람이 심한 이날은 안내자에 의하면 유럽, 특히 이곳 스위스의 전형적인 날씨라고 한다.

공업소유권에 대한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인 WIPO에의 방문을 자못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한국발명특허협회와 친숙한 KECHERID씨의 가정초대로 일행의 여독은 한결 풀리는 것 같았다.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WIPO에 도착하여 시설의 일부를 견학하였다. 출입구 중앙 로비의 원형천정의 명각은 "인류의 슬기는 학예 및 발명의 모든 소산을 내는 원천이다. 이들 소산은 삶의 보람을 인류에게 주는 보증이 된다. 학예와 발명의 보호를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원문 : 에이 · 복쉬)"라고 새겨져 있었고, 이를 보고 공업소유권 업무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대회의실의 정면 단상에 곧 한국대표가 회의를 주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미나장으로 향하였다.

세미나의 내용은 WIPO의 활동, PCT 출원절차, 특허정보등에 대한 것이었고, 일행 모두에게 지식의 풍부함을 더해주기에 충분하였다.

WIPO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3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지적소유권의 진흥과 관심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약에 의한 국가별 이해관계의 상위에 따라 조약변경의 필요성이 야기되면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반도체산업분야의 첨단기술, 생화학등에 대한 국제보호나, 위성중계등으로 각국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모방가능성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著作權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약의 준비를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두번째는 법과 실제의 사이에서 국제간에 조화와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기능이다. 가능하면 세계 각국은 공업소유권분야에서만이라도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절차를 채택하도록 장려함으로서 특허권의 법적 균일화를 꾀하자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현실과는 부합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조약에 가입할 것을 계속 장려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조약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회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이에 따른 일반규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직면하였던 문제의 해결방법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습득하여 유사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한다.

세번째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기능으로서, 다른 어느 기능보다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78년부터는 이 기능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현재 기금은 백만 스위스프랑정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기금은 선진국과 UN본부에서 WIPO에 지원하여 주고 있다고 한다.

PCT출원절차에 대하여는 그간 發明特許誌에 수회 연재된 바 있어 설명은 생략하며, 현재 WIPO 가맹국은 112개국, 파리조약 가맹국은 97개국, 그리고 PCT 가맹국은 39개국인 것만 밝혀둔다.

제네바공업진흥청(OPI) 訪問

오후에는 제네바의 산업을 대표하는 공업진흥청을 방문하였다. 회원수는 약 140여개 기업으로서 이곳에는 각 회원사의 최첨단 기술 제품을 전시하고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과 계속적인 상담을 벌이는 한편, 스위스내의 산업을 소개하는등 기업활동 다방면의 진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었다.

즉, 제네바의 산업제품과 서어비스에 대하여 알고 싶은 바를 소개하여 주고 하청기업, 특정제품, 계약이나 노우하우 또는 기업의 파트너를 소개하여 주며, 또한 회원기업은 신제품, 새로운 원자재, 신기술, 계약조건, 하청계약, 투자가능성을 이 곳에 제공하여 이 곳을 찾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고 한다.

로마(이태리) 到着

짧은 시간의 여정으로 제네바를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으나, 고대문화의 유산이 숨쉬고 있는 로마 입성

을 앞두고 일행은 다시한번 들뜬 기분인 것 같았다.

계속 흐리던 유럽에서의 날씨가 11월 26일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는 맑게 개여 우리 연수단의 마지막 방문처인 로마에서의 프로그램이 순조로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태리 特許廳

이태리 특허청은 상공부의 상공성 산하기구로서, 10개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제 1 부는 국제법관계와 타부서와의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제 2 부는 경리, 제 3 부는 서류처리, 등록허여된 권리의 관리, 컴퓨터처리, 뮌헨의 EPO와의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4, 5, 6부에서는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고, 제 7 부는 EPO 및 PCT 출원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제 8 부는 공업디자인 패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제 9 부는 공보등 자료 발간 및 보관업무, 그리고 제10부는 일반행정을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研修를 마치며

이태리 특허청을 마지막으로 유럽地域 工業所有權 研修의 大長征의 막을 내렸다.

이번 研修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工業所有權制度의 활성화를 통한 技術의 진보 발전이 선진국으로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이었으며, 또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국의 工業所有權制度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문화등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폭넓은 견문의 기회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기술입국을 향한 길이 험난하기는 하지만 그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이번 유럽研修를 주선한 韓國發明特許協會에 感謝하며 이와 같은 研修가 이 分野 종사자들에게 더욱 문호가 개방될 수 있게 함으로서 개인과 國家에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 研修記를 끝맺고자 한다. 〈ㅇ〉

工業所有權用語 29個 審議 確定

85年度 第4次 工業所有權用語審議會서

⊙…… 工業所有權 用語 醇化 特別委員會는 지난 11月 26日 大韓辨理士會 會議……⊙
⊙……室에서 85年度 第4次 委員會를 개최하고 42個 用語중 29個 用語를 審議……⊙
⊙……確定했다. 審議·確定된 用語는 다음과 같다.……⊙

○ 審議確定語 내역 ○

순화대상용어	구분	심의확정어및뜻	순화대상용어	구분	심의확정어및뜻
요부(凹部)	×	오목한 부분	절결부(折缺部)	×	잘린부분
우근차(羽根車)	×	회전날개	절환(切換)	×	전환(Switching)
우연부(右緣部)	×	오른쪽 가장자리	접착(蝶着)	×	나비나사붙임
육성용접(肉盛熔接)	×	덧붙임용접	접촉압(接觸壓)	×	접촉압력
의재(衣材)	×	옷감	조(漢)	×	수초
이재운반(移載運搬)	×	옮겨실어운반	조동(助動)	×	도와움직임
인선(刃先)	×	칼날	조반(操返)	×	되풀이, 반복
자형(雌型)	×	암틀	조작구(操作釦)	×	조작단추, 작동단추
장가(裝架)	→	목적의형으로되게걸치는것	조지(釣支)	→	매달린 상태로 지지하다 늘어뜨린상태
장가(張架)	→	팽팽하게 거는것	조착(吊着)	×	매달기, 매다는것
장구(長溝)	×	긴홈, 긴도장	조출(操出)	×	빼내는것
장착(裝着)	→	목적한 모양대로붙이는 것	좌굴(座屈)	×	구부리는것
장착(張着)	→	팽팽하게 걸어붙임	주주(主柱)	×	본기둥
적자(摘子)	×	손잡이	즐치상(櫛齒狀)	×	빗살모양
전단식(剪斷式)	×	자르는식(방법)			

(註) × : 심의확정어만사용　　→ : 뜻만확정시킨것